

계절의



흐름소리



계절의

흐름소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季节的流声/金赫著.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2005.9

ISBN 7-5389-1283-5

I. 季... II. 金... III. ①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②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5)第 109879 号

书 名/ 季节的流声

著 者/ 金赫

责任编辑/ 林承焕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7.25

字 数/ 190 千字

版 次/ 2005 年 9 月第 1 版

印 次/ 2005 年 9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 000 册

书 号/ ISBN 7-5389-1283-5/I·434(民文)

定 价/ 12.5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1987년 5월 13일 흑룡강성
밀산시 흥개진 흥농촌 출생.

밀산시흥개진흥농소학교, 밀
산시조선족초급중학교 졸업.

현재 밀산시조선족고급중학교
2학년 재학중.

《제1회 소년작가컵》글짓기
경연 금상, 《CT컵》제11차 전국
조선족중학생글짓기경연 금상, 《제
6회 청송문학상》 2등상, 《제4회
포석 조명희문학상》 금상, 《제6회
윤동주문학상》 은상, 《안중근의거
95주년 중학생글짓기경연》 3등
상, 《제8회 전국고중생일본어글
짓기경연》 최우수상, 2004년 일
본 가조출판사 《오나까상》 등 수
상.

《제5회 전국조선족소년아동
예술절》 독창 은상. 《제5회 중국
조선족중학생독서왕》 칭호 수여.



계절의 흐름소리

이슬로 살고 싶습니다!

투명한 숨소리로
하얀 이야기를 쓰면서
아침해살에 새어나온
슬렁이는 향기속에
파아란 꿈을 묻어놓고
울음 먼저 웃음을
마알각게 포개겠습니다.



머리글

—봄과 함께 달리는 문학소년

완달산 즐기줄기 뿌리내리고 목릉강 유유히 흘러흘러 유서깊은 이 땅, 백의민족의 하얀 냇을 고스란히 지키며 1,600여 명의 겨레의 아들딸들을 키워가는 보람찬 교육사업터에서 소년작가 김혁의 작품집이 고고성을 울리며 탄생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글재간이 뛰어나 못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던 김혁학생은 소학시절부터 시와 산문을 비롯한 수십 편의 작품들을 신문과 잡지들에 발표하였고 《제1회 소년작가컵》글짓기경연 금상, 《CT컵》 제11차전국조선족중학생글짓기경연 금상, 《제6회 청송문학상》 2등상, 《제4회 포석 조명희문학상》 금상, 《제6회 윤동주문학상》 은상, 《제8회 전국고중생일본어글짓기경연》 최우수상 등 묵직한 상을 수많은 받아왔습니다.

문학을 즐기고 사랑하는 김혁학생은 어려서부터 중외명작 등 많은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착실히 자신의 문학적기반을 닦아왔으며 《중국조선족중학생독서왕》 칭호까지 수여받았습니다. 하여 어린 나이지만 제법 작가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투시하며 자신의 눈에 비친 사회, 마음으로 느낀 친정, 우정, 인정세태를 주옥같은 글에 담아 소년작가다운 예술적재능을 과시하여왔으며 중학생의 신분으로 86편의 시를 위주로 수필, 산문 등 도합



계 전 의 이 품 수 리

111편의 작품을 묶은 작품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밀산시조선족중학교의 자랑이며 중국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반만년 민족문화의 피줄을 고이 이어온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우리의 민족교육이 거둔 자랑찬 성과입니다.

튼튼한 실력과 알찬 노력으로 빛어진 문학소년 김혁의 작품은 조선민족소년들의 가슴에 파아란 문학의 꿈을 심어줄 것이며 번영하는 민족문화의 터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품행에 뛰어난 학습성적으로 동학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한품에 안고있는 김혁학생은 예술에서도 남다른 장기가 있어 전국소년아동예술절 독창 은상, 랑송, 서예경연에서 수차 1등상을 받아안은 재간둥이이며 간부사업에서도 조직능력이 뛰어나 학생들속에서의 코기러기, 선생님의 훌륭한 조수이기도 합니다.

청춘의 생기와 희망으로 차넘치는 18살의 문학소년,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늘 시간의 촉박을 느끼며 더욱 많은 성과를 따내려고 주먹을 부르쥐고 달리는 웅숭깊은 소년, 장차 우리 민족문화발전을 위해 중임을 떠맡 웅대한 포부를 품고 약동하는 봄과 함께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소년의 앞길에 언제나 영광이 있을것입니다.

밀산시조선족고급중학교 교장 김강호

2005년 5월 5일



책을 내면서

그 어느날인가 진정으로 나에게 속하는 글들이 한권의 책으로 출판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가을,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대학에 가기전에 너의 작품집을 출판해야지.》

그러시면서 내앞에 두툼한 종이꾸레미를 내놓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흠어진 종이장들을 펼쳐보며 나는 그만 울고말았습니다. 내가 평시에 쓰고는 아무렇지 않은듯 팽개쳐던 원고들을 어머니는 어느새 그렇게 소중히 건사해두셨으니 말입니다. 저의 작품집을 출판하는것은 저의 꿈인 동시에 부모님들의 불타는 소망인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가을부터 저의 작품들을 정리하느라고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제가 여태까지 확고히 이 길을 걸어온 아름다운 발자욱들이며 18년간 커오면서 평범한 생활속에서 받은 작은 감동, 작은 기쁨들과 생활에 대한 나의 인식이자 성장의 기록입니다. 소학교 5학년에 《금향의 전화》를 《흑룡강신문》에 발표해서부터 지금까지 글짓기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오며 시와 수필을 적지 않게 썼지만 일부분 류실되는바람에 아쉽게도 이 작품집에 수록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되었던 작품들과 빛을 보지 못한 작품을 추려서 작품집을 묶어 한결음씩 옮겨디딘 나의 문학공부의 발자욱들에서 변모되어온 내 모습을 기록할수 있다는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모두 훌륭히 썼다기보다 창의성을 살려



계
전
의
비
의
리

가며 열심히 정성들여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집을 올해 18살인 나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영원히 잊을수 없는 세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소학교때의 임영숙선생님, 초중때의 신영애선생님, 고중때의 김옥수선생님, 이 세분은 모두 따뜻하고 지성어린 지도로 저의 문학태도를 바로잡아주셨으며 글짓기에서 단계적으로 비약을 안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대로 엮드려 절하고 싶습니다.

저의 스승님 려사소설가 림승환선생님의 나에게 대한 부탁이 떠오릅니다.

《봉정만리의 신념으로

살아서는 하늘을 가르는 번개인양 살고

죽어서는 백두산의 영원히 푸른 거숭이 되라.》

문학의 길은 제가 영원히 힘차게 걸어갈것입니다. 저의 모든것을 바쳐가며 우리 위대한 조선민족의 문화를 빛내가기 위해 노력할것이며 그 언제까지나 조선민족의 흰 넋을 가슴깊이 노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의 곁에서 저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시고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신 존경하는 부모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저의 작품집의 출판을 위해 노력하신 모교 밀산시조선족고급중학교와 교장 김강호선생님, 저의 성장을 지켜봐주시며 저에게 다함없이 지식을 가르쳐준 모든 선생님들과 저를 아껴준 친구들에게 삼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희열을 여태까지 저를 사랑해주신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자

2005년 3월



차 례

계

전

의

호

■

소

리

제 1 부 신조/1

신 조/3

안 개/4

이 슬/5

보슬비/6

조용히 들어봐/7

꽃/8

하얀 분필/9

삼월은/10

나의 노래/11

비가 와요/12

소나기 쏟아지면/13

봄이면/14

엄마의 사랑/15

엄마의 손/16

제비야/17

아기별/18

천 지/19



계

우정의 꽃/20

전

개학이에요/21

의

친구야/22

거짓말/23

꽃 심은 이야기/24

필끝의 아름다움/25

하

꿈을 씻는다/26

봄을 맞아/27

로

지도읽기/28

리별의 동화/30

소

봄이라는 이름으로/31

백양나무/32

리

백양나무의 사랑/33

길/35

꿈에 비낀 고향/37

해빛과 함께/39

기차길우에서/41

제 2 부 아, 그날이 오면/43

4월의 신앙/45

약 속/46

겨울은 깊어가는데/48

신 념/50

무 지/51

노래를 하자/53

석탄의 이미지/55

너 그리고 나/56

낮설음/57

네 가/58



멀어져간 공형/59
 행복이란/61
 너는 간거니/63
 하얀 기도/65
 네가 그림기에/67
 무 제/68
 마음의 계산/70
 삶/72
 잃어버린 자신/73
 거울앞에서/75
 축 복/76
 거울과 나/78
 아, 그날이 오면/80
 락 엽/82
 사랑 잊기/83
 리별후에/85
 울고있는 기도/87

제 3 부 비내리는 봄에/89

고향에 편지를 쓴다/91
 가슴앓이/93
 황 혼/94
 꿈/95
 신 념/97
 계절의 감상/99
 민들레/100
 단 풍/102
 가을하늘아래/103
 길/105



계

누나는/107

절

아침을 맞으리라/108

이 길에 서서/109

의

담 배/110

할아버지/112

할머니의 비원/113

이

이 늦가을에 어머니는/115

비내리는 봄에/117

십

십 년/119

기다림/121

소

시월애(時越愛)의 부름/122

소 원/124

리

사랑이 고마와서/126

누나야/127

초롱꽃/128

제 4 부 계절의 흐름소리/129

금향이의 <전화>/131

스승님과 함께 발해국유적지를 찾아서/133

박이 이렇게 찬란한줄을.../138

화학선생님/143

비속에서/147

신형약품 <창조신임> 설명서/150

옥황상제의 근심/152

저팔계의 검토서/155

성실석(城實石)을 부시다/158

후회없는 인생/162

문화의 사명/165

보람있는 저축/167



계

전

의

호

■

소

리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주세요!》/170

그날 밤의 감동/173

북극성—사과—어머니/176

사랑의 마음/180

짐/183

민들레/186

진정 수요되는것은 가치이다/189

계절의 흐름소리/192

천당을 향한 길에서/196

커가는 밤/200

어느 가을날/203

오 해/206

◇ 파란 꿈을 비껴주는 마음의 옥거울/209



제1부 신 조

이슬로 살고싶습니다!

...

순간의 행복을

찬연한 노래로

아침해살에 곱게 깔아야겠습니다.

신 조

이슬로 살고 싶습니다!

투명한 숨소리로
하아얀 이야기를 쓰면서
아침해살에 새어나온
슬렁이는 향기속에
파아란 꿈을 묻어놓고
울음 먼저 웃음을
마알짱게 포개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마음조각들을 모아
한순간의 시월애로
쏟랑—
엷은 메아리만 남기고
살포시 기화되어
하아얇게 하아얇게 웃겠습니다

순간의 행복을
찬연한 노래로
아침해살에 곱게 깔아야겠습니다.

(2003년, 《별나라》잡지에 발표)

